

본당 소식

2025년 3월 교황님 기도지향 :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들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용서를 통하여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 안에 서로 각자의 은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사순시기(재의수요일) 안내

- 재의 수요일: 03월 05일(단식:18~60세, 금육:14세 이상)
재의 수요일은 사순 시기를 시작하는 날로서 교회가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던 데에서 생겨났습니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태워 만든 재를 신자들의 이마나 머리에 얹음으로써,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창세 3.19 참조)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줍니다.
- 재의 예식: 03월 09일, 사순 제1주일 교중미사 중
- 십자가의 길 기도: 사순시기 매주 금요일 저녁8시(3월7일~4월11일). 오라토리오.

♣ 모임/회의

- 청년회의: 오늘(03월 02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박세아 루치아

전례 성가

- 입당: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 봉헌: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 성체: 152 (오 지극한 신비여),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 파견: 281 (성 요셉)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09,10€ • 교무금 200,00€

전례 봉사

이번 주일(3월 2일)	다음 주일(3월 9일)
1독서: 박세아 루치아	1독서: 이민찬 비오
2독서: 박동현 요한보스코	2독서: 윤지영 베레나
복 사: 정아인 레나, 강윤이 스텔라	복 사: 안태리 소화데레사, 김사빈 엠마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3월 2일 (녹) 연중 제8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 하오니 좋기도 하옵나이다.

화답송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1독서 (집회서 27,4-7)

- 4 체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 5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 6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7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5,54-58)

형제 여러분,

54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56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58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복음 (루카 6,39-45)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39 이르셨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41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43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44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공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돌보시어,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티를 돌아보는 겸손과 용기를 가진 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군사적 긴장 속에 있는 저희 민족을 굽어보시어, 남북이 군사력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써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스승이신 주님, 새로운 환경에서 관계 맺음과 배움을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문을 배우고 익히며 기쁜 나날을 보내게 하소서

4.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밀라노 교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모든 이가 절제와 회개 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다가오는 사순 시기를 슬기롭게 준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 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